

“더 잃을 것 없는 꼴찌 ... 발전만 있을 것”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 한국 럭비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출전한 올림픽 본선 무대에서 12개국 중 최하위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한국 럭비 대표팀은 기립박수를 받았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열심히 훈련해 강팀을 상대로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한일전에서는 19점이라는 고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아름다운 꼴찌’ 한국 대표팀에 우리학교 소속 선수가 있다. 우리학교 럭비부 주장 최성덕(스포츠지도학 2018) 선수다. 우리 신문은 최 선수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럭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A. 중학교 때 럭비 선수들이 하는 동아리로 잘못 신청했다. 그 계기로 럭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부모님을 설득했고, 그렇게 시작했다. 우연한 계기로 시작해 국가대표까지 됐다.

Q. 럭비의 매력은 무엇인가.

A. 원사이드 정신력이라고 생각한다.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서로의 몸을 부딪치면서, 어떻게 보면 과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종료 휘슬이 울리면 상대편과 너 나 할 것 없이 안아주고 “고생했다. 정말 좋은 경기였다”라고 얘기해주는 모습이 정말 뜨겁게 느껴진다. 서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 운동장에 어떤 정신으로 나왔을지 아니까. 상대방이 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수고했다고 인정해주는 모습에서 매력을 느낀다.

Q. 대학 럭비선수 중 유일한 올림픽 출전자인데.

A. 절대 잘해서 합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좀 더 배우라는 의미에서, ‘한국 럭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로 네가 어떤가’라는 의미에서 명단에 포함된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 절대 자만하지 않고, 항상 주변 사람들과 도와주신 은사님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다. 우리 학교에 이바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Q. 올림픽에 합류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나?

A. 올림픽 최종명단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난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솔직히 제일 먼저 떨어



우리학교 럭비부 주장 최성덕 선수가 “학우들의 응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사진=김경민 기자)

질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처음에 30명으로 시작해서 22명, 18명, 13명으로 인원을 줄어나간다. 그래서 발표할 때마다 긴장을 많이 했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길지 않은 운동시간에서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가장 힘들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합류하게 된 본인만의 비결이 있다면?

A. 항상 이기려고 하는 습관과 마음가짐이다.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진 내가 될 수 있기 위해 노력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운동하고 있고, 남들과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좀 더 알차게 쓰자는 마음

로 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의 럭비경기를 보며 플레이를 익히고자 노력했다.

Q. 올림픽이 끝나고 많은 환대를 받았을 것 같다.

A. 럭비를 사랑해주는 팬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아 놀랐다. 올림픽 이후에도 지지와 응원이 끝나지 않고 럭비의 부흥과 함께 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올림픽을 끝낸 소회는 어떤가?

A. 우리는 잃을 것이 없으며 항상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한국 럭비의 최종목표는 갑자기 일등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12등에

서 시작했으면 다음에는 10등, 7등, 3등, 1등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단계가 있듯이 우리의 성적과 앞으로의 미래에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성장하고 싶다.

Q. 가장 기억에 나는 경기는?

A. 아일랜드전이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전 경기에서는 2분, 3분이라는 짧은 시간만을 출전했지만, 아일랜드전은 선발로 출전해서 끝까지 경기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Q. 올림픽에서 잊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나?

A. 패배이다. 잊어서도 안 되고, 똑같은 실수를 두 번 이상 반복할 순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전에서의 패배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주전이 되면 한일전은 무조건 이기고 싶다.

Q. 비인기 종목의 설움이 있다면?

A. 운동선수는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럭비에 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그리고 은퇴를 한 뒤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급여에 관한 부분 역시 고민거리이다.

Q. 한국 럭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A.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럭비 교육을 확대해서,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럭비를 접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대학교 팀들끼리의 시합도 너무 부족하다. 리그가 운영될 수 있을 만큼의 대학교 럭비부가 생겼으면 좋겠다. 최종적으로는 실업팀 수가 증가해 많은 선수가 대한민국 럭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실업팀 수의 증가는 젊은 럭비선수들에게는 또다른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Q. 럭비 선수로서의 목표는?

A.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 ‘저 선수 열심히 했던 선수이고, 잔뼈 부리지 않았던 정직한 선수다. 그리고 천재는 아니지만, 열심히 해서 저 자리까지 올라갔던 선수다’라는 말들이 내 이름 뒤에 나왔으면 좋겠다.

Q. 주장으로서의 목표가 무엇인가?

A. 2021년 전국체전 한 대회가 남았다. 전국체전은 실업팀과 맞붙기 때문에 절대 쉬운 경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경희대는 실업팀까지 상대할 수 있는 팀이구나. 관히 대학교 1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기에서 보여주고 싶다.

Q.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A. 내가 경희대 선수이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학우분들이 포털사이트의 응원 기능 등을 포함해서 여러 부분을 통해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동문이라는 이유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해서 ‘내가 응원했던 선수가 저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보는 눈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